

우즈 "PGA 톱랭커 투어 만들자"



타이거 우즈(사진)가 LIV골프에 대항하는 미니투어의 출범을 준비한다.

지난 2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우즈는 전날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을 앞두고 연 선수들과의 회의에서 LIV와 유사한 'PGA투어 내 새로운 미니투어' 운영 계획을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LIV는 48명의 선수만 출전해 3일간 컷 탈락 없이 경쟁한다. 우즈가 구상한 미니투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PGA투어 상위권 선수만 참여하는 최대 15개의 대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LIV 방식처럼 컷 탈락이 없다. 대회당 상금 규모는 LIV보다 적지만 대회 수가 더 많다. 무엇보다 PGA투어를 떠나야 출전할 수 있는 LIV와 달리 PGA투어에 속해 있으면서 출전할 수 있다.

우즈는 내 미니투어의 상금 확보를 위해 아일랜드의 부호인 존 패트릭 맥매너스 등 투자자와 접촉했으며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해 운영 자금과 상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영리단체인 PGA투어와 달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훨씬 더 큰 자금력을 확보하기 위한 밑그림이다.

하지만 일부 상위권 선수만을 위한 투어 운영 계획에 반발도 나왔다. 이미 유명 선수들이 거액의 초청료를 받고 LIV에 합류해 상대적 박탈감이 적지 않은 가운데 PGA투어 역시 일부 선수만을 위한 돈 잔치를 벌인다는 계획이 답답지 않은 탓이다.

사진=pgatour.com

"US오픈 테니스 남녀 다른 공에 불만"

2022년 마지막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유에스(US)오픈이 8월 29일부터 뉴욕에서 열린다. 그런데 개막을 앞두고 경기구와 관련해 안팎이 시끄럽다. 남녀 선수가 사용하는 공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 여자 테니스 최강자 이가 시비옹테크(21·폴란드·사진)는 최근 "왜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가 대회에서 다른 공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유에스오픈의 경우 월슨 공을 사용하는데 4대 메이저대회 중 유일하게 남녀 선수 경기구가 다르다. 코팅 차이로 여자 선수가 사용하는 공이 더 가볍다.

시비옹테크는 "15년 전에는 팔꿈치 부상 등의 이유로 여자 선수들이 가벼운 공을 썼지만 지금은 여자 선수들도 신체적으로 잘 준비돼 있다."면서 "유럽에서는 여자 경기용 공을 잘 구할 수도 없다. 집에서 연습할 때는 남자 경기용 공을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비옹테크는 "공 차이 때문에 실책도 많아진다."라면서 "여자테니스협회(WTA)를 설득하는 것을 그만뒀지만 이 공으로 대회를 치르는 게 솔직히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여자테니스협회(WTA)의 에이미 바인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수석 부사장은 ESPN과의 인터뷰에서 "WTA는 하드코트 경기 때 항상 일반 펠트 공을 써왔다. 일반 펠트 공을 사용하면 어깨, 팔꿈치, 손목 부상 방지 효과가 있다."며 "일부 선수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선수, 스포츠 과학팀과 의견을 나누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shutterstock

LA 다저스, 전력 순위·WS 우승 가능성 1위

메이저리그의 독보적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공식 웹사이트 MLB.com이 이날 8월 4째주 전력 순위(파워랭킹)를 공개했다. 다저스는 전주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다저스는 지난 22일 기준 시즌 84승 36패 승률 0.700

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MLB.com이 소개한 스포츠 베팅업체 드래프트 킹스 자료에 따르면, 다저스는 월드시리즈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으로도 입지를 굳히고 있다.

파워 랭킹 2위는 휴스턴이었다. 휴스턴은 월드시리



▲ 2020시즌 월드시리즈 당시 우승을 확정 짓고 기뻐하는 LA 다저스 선수들. 사진=유튜브(RS Productions) 캡처

즈 우승 확률에서도 2위였다. MLB.com은 "휴스턴은 평균자책 3.08이라는 아메리칸리그 최고의 투수진을 앞세워 10월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며 "여기에 휴스턴의 풍부한 포스트시즌 경험이 더해진다면 휴스턴의 상황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워 랭킹과 우승 확률 3위부터는 엇갈렸다. 뉴욕 메츠는 파워 랭킹 3위, 우승 확률 4위를 기록했다. 8월 들어 다소 부진했던 뉴욕 양키스는 파워 랭킹은 5위, 우승 확률은 3위에 올랐다.

'디펜딩 챔피언' 애블란타가 파워 랭킹 4위, 우승 확률 5위를 차지했다. 김하성의 소속 팀 샌디에이고는 파워 랭킹 11위, 우승 확률 6위에 올랐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관: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